

유통가 '가정의 달' 소비자 공략 분주



롯데백전주점, 어린이날 맞이 가방·장난감·키보드 등 할인 다이소, 카네이션·용돈상자 쿠팡, 인기가전 특가 행사 진행

전북지역 유통업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행사 등의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특수 공략에 나섰다.

침체된 지역 경기속에서도 소비자

들이 아이들 상품과 선물에는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대비해 유통업체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목잡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어린이날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과 선물 제한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재료가 좋기로 유명한 '마리리타이거'는 촉감놀이 물품, 키보드, 트램펄린 등 여러 상품을 내달 6일까지 할인가로 판매한다.

어린이 타이거 키보드(헬멧, 보호대) 세트가 68% 할인된 5만 4900원, 타이거 슬라임 버라이어티 팩 6종+배쓰버블 세트 51% 할인된 2만 1900원에 선보인다.

또 타이거 에너지 트램펄린+펀치백+탱탱볼 세트 46% 할인된 9만 9000원, 핑크퐁 한글동요가방+동요

마이크 상어가족 세트 38% 할인된 4만 9900원, 타이거 사파리파크 스티커왕 동물 세트 36% 할인된 4만 4900원, 양면 원목 이젤 타이거 보드마커+지우개 세트 35% 할인된 6만 9900원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롯데 전주점은 인형을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링크뮤와 콩콩이가 진행한 협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색상의 개성을 가진 레몬버니, 블루버니, 플라워 인형을 제안하고 블랙야크 키즈는 쇼핑지원금을 이벤트를 진행한다.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서 '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한다. 어버이날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는 카네이션과 용돈상자와 자녀에게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토끼, 여우, 곰돌이, 강아지 등 '보들보들 애착 인형'과 관절을 움직이면 볼도저, 레미콘, 덤

프터 등으로 멋지게 변신하는 로봇이 준비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D 부모님 문답', 'D 자녀 문답'은 물론, 꽃다발 포장이나 선물 포장 용품 등 130여 종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쿠팡도 내달 7일까지 '가정의 달 선물 세일'을 마련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에 맞춰 삼성전자, Apple, LG 등 인기 가전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로 판매되며 9만 9000원 이하의 특가상품 기획전도 운영된다.

도내 한 유통업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우기자



5월 12일까지 전주수목원에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가 열린다.

농진청 - 전주수목원, 30~새달 12일까지 솔내원 '귀공자 비밀의 화원' 전시 관람객 맞이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이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그려내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쭉'과 '영산홍' ▲배롱나무류 '자미'와 '백일홍' ▲동백나무류 '동백'과 '산다' ▲장미류 '장미'와 '사계화'의 차이를 실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문으로 소개한다.

농진청은 지난해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임원경제지 여원지 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전시를 열고 내년에는 고려 시대 화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경환기자

롯데백전주점 - 관광공사 27~28일 관광두레 팝업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이번 주말 '전북 관광두레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백화점 9층에서 '전북 관광두레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포스터>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음식, 기념품 등을 생산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제품을 도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전주시·임실군·완주군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전북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로컬굿즈' 만들기, 지구를 살리는 '키친이클링 동참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도록 구성했다.

/조은우기자

“국민연금 운영 전문기관으로 연금개혁 노력해달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연금공단 찾아 운영 현황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운영 상황을 살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

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환기자

햇살 좋은 날 뭐해?
롯데백화점 전주점 및 함께하는 '전북관광두레 팝업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 4.27(토) ~ 4.28(일)
롯데백화점 전주점 9F 옥상공방
a.m.10:30 - p.m.18:00

약 2500호 임대주택 신규 공급 유지보수와 노후시설 등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적극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가 올해 주거복지부문에 2063억원을 투입하고 6만1700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전북분부는 건설임대 4만8000호, 매입임대 7000호, 전세임대 1만호 등 총 6만5000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완주형, 익산평화 등 건설임대 768호, 매입임대 820호 등 약 2500호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 최초로 인구 8만이하 군 단위 지역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을 통해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진안군(1월23일)·부안군(4월2일)과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안전한 집'이라는 목표로 신속한 유지보수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심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1630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성능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단지 공공부에 대해서는 체인사업 사업을 통해 단지 이미지를 개선한다.

이울러 전주·익산·정읍에 위치한 마이홈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정보를 도민들께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고,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수요맞춤형 주거·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산배

산, 전주효천 등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입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플랫폼화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혁신, 군산미장 임대주택의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해 쾌적한 소통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운영 외에도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올해 총 5만2000호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조사를 진행하고, 자력으로 주택 개량이 곤란한 저소득층 주택 1267호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등 주거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LH 전북지역본부 김동섭 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부담없이 안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LH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전개공, 익산 부송4지구 주택·근린·상업용지 51필지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 부송4지구 내 단독주택·근린생활·상업용지(체비지) 51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부송동 시가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68억원, 조성면적은 29만4281㎡이다.

공급토지 및 공급금액은 단독주택 용지 33필지(258㎡~373㎡), 근린생

활용지 7필지(350㎡~468㎡), 상업시설용지 11필지(377㎡~579㎡)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총 241억원이며 필지별 분양가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063-280-742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연기자

3월 수출 5억 8851만 달러... 12% 감소

무역협회 전북본부, 무역 동향

전북지역 3월 수출·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1%가 감소한 5억 8,851만 달러, 수입은 5.0%가 감소한 5억 6,911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8,16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농약및의약품(Δ7.5%), 자동차(Δ0.6%), 건설광산기계(Δ30.4%), 농기계(Δ17.1%)가 감소했다. 다만 합성수지(Δ12.1%)는 늘었다.

농번기를 앞두고 관련 품목 수요 증가와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위주로 자동차 및 건설광산 인프라 위주로 수출 실적이 발생해, 3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직전 2024년 2월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유럽·북미 시장은 수출 실적은 줄었지만 중동 및 인접지역 국가들의 수출증가율이 두 자리 이상 급증했다.

이들 국가로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이었으며, 남미 국가인 멕시코(66.1%)는 전기차 생산지로 철강·관과 자동차부품이, 브라질(33.9%)은 광산기계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경환기자

4월 제조업 기업경기 13p 상승 '회복세'

한은 전북본부, 비제조업 5p ↑

전북특별자치도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가 지속해서 부정적인 가운데 이달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북본부가 25일 발표한 '4월 전북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도내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3으로 지난 3월(70)보다 13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경기 악화를,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 지수는 80이던 지난 6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80대로 다시 들어섰다. 4월 중 실적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은 88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생산성은 86으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으나 자금은 8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도내 비제조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도 76으로 전월(71) 대비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중 실적 지수를 보면 매출은 72로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하고 생산성은 76, 자금 사정은 69로 각각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제조·비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5월 업황 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84, 비제조업이 77로 전월 전망보다 각각 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은우기자